

# 龐安時的 生涯와 著書에 대한 考察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sup>1</sup>

丁海鎮<sup>1</sup> · 金容辰<sup>1</sup> \*

## 关于庞安时之生涯及着书的考察

丁海鎮<sup>1</sup> · 金容辰<sup>1</sup> \*

<sup>1</sup>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伤寒论』这部论着,对东洋医学的辨证论治体系给予了很好的反映,而对『伤寒论』的研究至宋代已经颇为可观,所以把握宋代的『伤寒论』的发展过程,将成为『伤寒论』研究的重要基础.

作者在有关宋代『伤寒论』的诸多研究书籍中,选择了庞安时的『伤寒总病论』进行了考察.首先,通过对庞安时生涯进行考察,得知他自幼便有很多机会接触医学,使他后来能够在医术上有所成就.再者他与宋代著名的儒学者苏东坡、张耒、黄庭坚等文人多有交流,而使其名声更为显赫.故此,后世将明代罗田的万密斋、蕲州的李时珍、清的广济县的杨际泰和他共赞为鄂东四大名医.

他着述了『伤寒总病论』六卷、『难经解』一卷、『主对集』一卷、『本草补遗』一卷、『验方书』一卷、『庞氏家藏秘宝方』五卷和『脉法篇』一卷等,对医经、脉法、本草及伤寒论,进行了精密的研究.尤其是他的『伤寒总病论』,本于『内经』之要旨,从于王叔和的『伤寒例』,再结合自己的临床经验,对『伤寒论』的要点进行了阐发,可谓集北宋以前伤寒学术之大成.

**关键词** : 庞安时, 生涯, 着书, 鄂东四大名医, 伤寒总病论

## I. 緒論

漢代 辨證論治의 原則하에 만들어진 張機의 『傷寒論』은 王叔和의 整理와 孫思邈의 研究가 있었지만 隋唐五代에 이르기까지 널리 普及되지는 못하였다.

宋代에 校定醫書局에서 많은 醫書에 대한 校定과 頒布가 있는 年후에 많은 醫書에 대한 研究가 開始되었다. 특히 『傷寒論』에 대하여서도 많은 研究가 始作되었다. 그 중 比較의 有名한 것은 成無己의 『傷寒論注』와 『傷寒明理論』이며, 龐安常의 『傷寒總病論』, 韓

祗和의 『傷寒微旨』, 朱肱의 『南陽活人書』, 許叔微의 『傷寒發微論』, 『傷寒百證歌』와 『傷寒九十論』, 郭雍의 『傷寒補亡論』, 楊士瀛의 『傷寒類證活人總括』 등이다<sup>1)</sup>.

宋代 學者의 『傷寒論』에 對한 研究는 주로 『傷寒論』 原文에 대한 注解와, 整理 및 補充의 세 方面으로 나타난다. 以上 몇몇의 研究를 통해 『傷寒論』은 進一步하여 系統化, 理論化되었고, 더욱 完全히 整理되어 각 方面에서 모두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 그리하여 『傷寒論』의 辨證論治의 精神은 廣範圍하게 擴大普及되었다.

이처럼 『傷寒論』의 發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宋代에 傷寒論研究의 先驅者라고 할 수 있는 龐

\* 교신저자 : 金容辰.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E-mail: king@dju.kr Tel: 042-280-2626

접수일(2009년 12월 17일), 수정일(2010년 1월 7일),

게재확정일(2010년 1월 12일)

1)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 編著. 韓中醫學史概說. 大田. 周珉 出版社. 2007. p.241.

安時에 대한 研究의 일환으로 먼저 그의 生涯와 著書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 II. 本論

### 1. 龐安時的 生涯

龐安時(1042~1099)는 字가 安常이며 宋나라 慶曆~元符時期的 蕪水(현재 湖北省 滬水縣麻橋)사람이다.

그의 曾祖父인 槩와 祖父인 震과 父인 慶이 모두 醫術이 뛰어 났다고 하며, 龐安時は 陳氏와 結婚하여 二男三女를 두었는데 長子 璫과 次子 珙가 모두 孝心이 깊었다고 한다<sup>2)</sup>. 그는 名醫世家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醫書를 접하게 되었고 醫術이 뛰어나 ‘醫王’, ‘藥王’, ‘龐真人’ 등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明代 羅田의 萬密齋와 蕪州的 李時珍과 清代 廣濟縣의 楊際泰와 더불어 鄂東四大名醫라고 불리기도 한다<sup>3)</sup>.

『宋史·列傳第二百二十一·方技·龐安時傳』<sup>4)</sup>의 內容을 보면 아래와 같다.

“龐安時字安常也 蕪州蕪水人이라 兒時能讀書하고 過目輒記라 父는 世醫也라 授以脈訣말새 安時曰 是不足爲也라하고 獨取黃帝扁鵲之脈書治之말새 未久에 已能通其說하고 時出新意하며 辨詰不可屈말새 父大驚말새 時年猶未冠이라 已而病贖말새 乃益讀靈樞太素甲乙諸秘書하고 凡經傳百家之涉其道者말새 靡不通貫이라 嘗曰 世所謂醫書를 予皆見之말새 惟扁鵲之言이 深矣라 蓋所謂難經者는 扁鵲寓術於其書而 言之不祥말새 意者使後人自求之歟말새 予之術蓋出於此말새 以之視淺深하고 決死生말새 若合符節하고 且察脈之要는 莫急於人迎寸口라 是二脈陰陽相應이 如兩引繩말새 陰陽均하면 則繩之大小等이라 故定陰陽於喉手하고 配覆溢於尺寸하고 寓九候於浮沉하고 分四溫於傷寒이라 此皆扁鵲略開其端하고 而予參以內經諸書

말새 考究而得其說이라 審而用之하고 順而治之하면 病不得逃矣라말새 又欲以術告後世라 故著難經辨數萬言이라 觀草木之性與五藏之宜말새 秋其職任하고 官其寒熱하고 班其奇偶말새 以療百疾말새 著主對集一卷이라 古今異宜말새 方術脫遺말새 備陰陽之變말새 補仲景論하고 藥有後出말새 古所未知하고 今不能辨말새 嘗試有功말새 不可遺也말새 作本草補遺라

爲人治病에 率十愈八九말새 踵門求診者를 爲辟邸舍居之말새 親視餽粥藥物말새 必愈而後遣하고 其不可爲者는 必實告之말새 不復爲治라 活人無數말새 病家持金帛來謝말새 不盡取也라 嘗詣舒之桐城에 有民家婦孕將產말새 七日而子不下하고 百術無所效라 安時之弟子李百全適在傍舍말새 邀安時往視之말새 才見말새 即連呼不死하고 令其家人以湯溫其腰腹하고 自爲上下拊摩말새 孕者覺腸胃微痛하고 呻吟間生一男子말새 其家驚喜 而不知所以然이라 安時曰 兒已出胞 而一手誤執母腸不復能脫이라 故非符藥所能爲오 吾隔腹捫兒手所在하고 針其虎口말새 既痛即縮手말새 所以遽生말새 無他術也라말새 取兒視之말새 右手虎口針痕存焉말새 其妙如此라

有問以華佗之事者말새 曰 術若是말새 非人所能爲也라 其史之妄乎말새 年五十八而疾作말새 門人請自視脈말새 笑曰 吾察之審矣라 且出入息亦脈也말새 今胃氣已絕이라 死矣라말새 遂屏卻藥餌하고 後數日에 與客坐語而卒이라”

이상의 內容과 其他의 資料에 나타난 龐安時的 生涯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 1) 聰明하고 讀書을 좋아함

龐安時에 대하여 『宋史』에서 “兒時能讀書하고 過目輒記라”고 하였고, 『傷寒總病論·龐先生傷寒論序』에서 “龐安常自少時喜醫方하고 爲人治病에 處其死生이 多驗말새 名傾淮南諸醫라 然爲氣任俠하고 鬪鷄走狗 蹴鞠擊毬 少年豪縱事에 無所不爲라 博弈音技는

2) 熊傳海, 鄂東四大名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62.

3) 歐陽軍, 我國最早開設住院部的名醫 龐安時, 藥物與人, 2000, (1), p.24.

4) 托克托, 宋史, 影印本.

一工所難而兼能之 家富多後房 不出一戶而所得  
이라”고 하였으니 어려서부터 讀書을 좋아하였는데  
특히 醫書를 많이 읽었고 聰明하여 暗記를 잘하였다.  
아울러 사내답게 용감하여 답싸움을 시키고 競走  
를 시키는 등 빈둥거리며 工夫를 열심히 하지 않고  
蹴鞠과 擊毬를 하여 少年時節에 개구쟁이로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 아울러 바둑과 音樂 등을 좋아하  
여 모든 것을 잘 하였다. 집안은 富裕하여 疍박을 나  
가지 않고도 얻고자 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었다.

『宋史·龐安時傳』의 記錄에 의하면 弱冠의 나이가  
되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脈訣』을 배우고 스스로 부  
족하다 생각하여 黃帝와 扁鵲의 脈書를 研究하여 自  
身の 意見을 내놓기도 하였다고 한다. 얼마 후에 耳  
聾이 생기게 되어 『靈樞』, 『太素』, 『甲乙經』 등의 醫  
學經典과 著名한 醫學書籍을 涉獵하여 여러 醫書중  
에 扁鵲의 『八十一難經』이 가장 뛰어난다고 하여 더  
욱 研究를 하였다. 아울러 診脈의 중요성을 認識하여  
扁鵲의 學說에 自身이 『內經』 등 주요 醫書를 參考하  
여 診脈理論을 더욱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였다고 하  
였다.

## 2) 뛰어난 醫術 및 品行

『九靈山房集滄州翁傳』에서는 “龐安常醫는 能啓扁  
鵲之所秘하고 法元化之可法하니 使天假其年이면 其  
所就가 當不在古人下리라”<sup>5)</sup>고 하여 龐安時的 醫術  
이 古代 名醫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였고, 『宋史』에서  
도 治療率이 매우 높아 十愈八九 하였고, 아울러 舒  
의 桐城에서 妊産婦의 胎兒不出을 鍼으로 治療하였  
다는 記錄이 있다.

『仇池筆記』<sup>6)</sup>에 “泗州(지금의 江蘇省 洪澤湖)의 太  
守인 毛公弼이 泄痢가 오랫동안 治療가 되지 않자 屢  
슬을 버리고 故鄉으로 돌아가 龐安時에게 診察받자  
丹石에 中毒되어서 생긴 것이라고 하여 葵菜를 한 술  
다려 服用하게 하였다. 다음날 다시 다려 服用하게  
하니 五色의 爛斑을 洞泄하면서 泄痢가 그치게 되었

다.”는 記錄도 남아 있다.

龐安時は 醫術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患者를 생  
각하는 마음도 따듯하여, 집으로 찾아오는 患者들에  
게 病坊(病院)을 만들어 寄居하게 하고 직접 藥物을  
다려주어 治療하였으니, 病坊을 만든 일은 中國의 醫  
學歷史에서 最初의 기록이라고 하겠다<sup>7)</sup>.

1985年 8月 18日 滌水縣 清泉鎮 雲路口村 第七組  
와 滌水電力變壓器廠 寄宿舍의 남쪽에서 宋代의 古  
墓를 發掘하였는데 墓主人은 侯嚴으로 字는 仲修이  
고 湖北省 蘭溪(지금의 滌水縣)사람으로 北宋 元祐  
三年(1088年)에 疾病에 걸려 이듬해 病死하였다고  
한다. 그의 碑石인 『宋隱居侯君墓志銘』(現在는 滌水  
縣博物館에 保存되어 있음)에 “元祐三年에 君遇得疾  
하야 乃召居士龐君診視라 龐既至而疑焉하니 君亦深  
喻其旨하야 了無留難之色하고 雖勉服藥餌하니 扶持  
累月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龐既至”는 龐安時  
가 患者가 생기면 往診을 갔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러한 사실은 많은 醫師들이 그러하듯 患者를 위하여  
어디든지 달려가서 疾病을 고쳐주는 醫療人의 기본  
적인 資質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부분이  
다<sup>8)</sup>.

이러한 資質에 대하여 熊傳海의 鄂東四大名醫에서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sup>9)</sup>.

“龐安時は 患者의 苦痛을 自身の 것으로 생  
각하여 患者를 同情하고 尊重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니 이를 兩待와 四不로 요약  
할 수 있다. 一待는 患者를 親知와 같이 대  
하는 것으로 ‘調護寒暑所宜하고 珍膳美蔬하  
고 時節其飢飽之度라’한 것이고, 二待는 患  
者를 仁의 마음으로 보아 ‘人疾詣門에 不問  
貧富하고 …… 愛老而慈幼라’하였다. 四不  
은 一不은 患者의 財物을 탐하지 않은 것이  
니 ‘其疾已也에 君脫然不受謝而去라’하고

5)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 韓中醫學史概說. 大田. 周珉出版  
社. 2007. p.249. (『九靈山房集滄州翁傳』의 內容을 再引  
用)

6) 熊傳海. 鄂東四大名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p.64~65.

7) 歐陽軍. 我國最早開設住院部的名醫 龐安時. 藥物與人.  
2000. (1). p.24.

8) 熊傳海. 鄂東四大名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p.65~66.

9) 熊傳海. 鄂東四大名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p.65~66.

‘病家持金帛來謝할새 不盡取也라’이다. 二不은 患者에게 精確한 治療情報을 提供한 것이니 ‘其不可爲者는 必實告之하여 不復爲治라’한 것이다. 三不은 患者의 疾病에 대하여 試驗삼아 治療하지 않은 것이니 ‘不以人之疾嘗試其方하니 如疾痛在己也라’한 것이다. 四不은 珍貴한 藥物을 使用하여 患者들에게 經濟的 苦痛을 주지 않은 것이다.”

### 3) 蘇軾과의 關係

龐安時는 蘇東坡, 張耒, 黃庭堅 등의 文人들과 많은 交流가 있었다.

元豐 5年(1081年)에 蘇東坡가 黃州의 東南쪽 30리 되는 蠓師店에서 居處하며 農사일을 하여 왼손이 붓게 되었다. 이때 蕪水の 麻橋에 있던 龐安時에게 鍼을 맞고 낫게 되었다. 그리하여 蘇東坡는 龐安時가 醫術이 뛰어난 醫師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 친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東坡志林』에 “安常雖龔이나 而穎悟絶人하야 以紙畫字하니 書不數字에 輒深了人意라 余戲之曰 餘以手爲口하고 君以眼爲耳라 하니 皆一時異人也라하니라”<sup>10)</sup>라고 하였다.

蘇東坡의 疾病이 나온 뒤에 蘇東坡와 龐安時가 함께 蕪水郭門 밖의 清泉寺에 遊覽을 갔는데 王羲之가 붓을 씻었다는 洗筆泉이 있는데 물이 아주 달고 아래로 서쪽으로 흐르는 蘭溪가 있어 蘇軾이 아래와 같은 노래를 지었다<sup>11)</sup>.

山下蘭芽短浸溪, 松間沙路淨無泥.  
蕭蕭暮雨子規啼, 誰道人生無再少?  
君看流水尚能西, 休將白發唱黃雞.  
(遊沙湖, 『東坡文集』卷八十)

이후에 두 사람은 暴飲을 하고 歸嫁하였다고 한다. 蘇軾은 항상 龐安時를 御醫인 單驥에 比喻하여<sup>12)</sup>

安時는 蕪水人이라 術學造妙而有賢行하니 大類蜀人單驥하니 善療奇疾이라 字安常이라 知古今하야 刪錄張仲景已後傷寒論하니 極精審하고 其療傷寒에 蓋萬全者也라  
(『文集』補遺)

라고 하여 그 당시 御醫인 單驥와 비유할 만하다고 하고 특히 張仲景의 『傷寒論』에 많은 研究를 하였다 고 記錄하였다.

蘇軾이 蘇頌에게 龐安常이 醫術에 뛰어나고 性品 또한 高邁하여 名利를 推求하지 않으니 治療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推薦하였다<sup>13)</sup>.

公所苦는 想亦不深이로라 但庸醫不識이라 故用藥不應耳라 蕪水人龐安時者는 脈藥皆精하고 博學多識하야 已試之驗이 不減古人이라 度其藝하면 未可邀致로라 然이나 詳錄得疾之因하고 進退之候하고 見今形狀하면 使之評論處方이 亦十得五六이라 可遣人與書하니 庶幾有益이리라 此人操作高雅하고 不志於利하니 某頗與之熟하고 已與書令候公書至하니 卽爲詳處也하소서  
(與蘇子容六首 『文集』補遺)

이후로 蘇軾의 弟子들도 龐安時와 往來가 많게 되었으니 黃庭堅, 張耒 등의 人物이 蘇軾과 關聯된 사람들이다.

蘇軾이 黃州를 떠나게 되었을 때 龐安時가 『傷寒總病論』을 蘇軾에게 寄贈하자 蘇軾이 거기에 序를 지어주었다. 아울러 아래의 文章을 그의 『文集』에 남기게 되었다<sup>14)</sup>.

久不爲問이라도 思企日深이라 過辱存記하고 遠枉書教라 具聞起居佳勝하니 感慰兼集이라 惠示傷寒論하니 真得古聖賢救人之意하고 豈獨爲傳世不朽之資로 蓋已義貫幽明矣라 謹當爲

10) 李官火. 蘇軾與龐安時. 浙江中醫雜誌. 2003. (9). p.406.

11) 張衛, 張瑞賢. 文豪蘇東坡奇遇名醫龐安時. 中醫藥文化. 2006. (1). p.20.

12) 張衛, 張瑞賢. 文豪蘇東坡奇遇名醫龐安時. 中醫藥文化. 2006. (1). p.21.

13) 張衛, 張瑞賢. 文豪蘇東坡奇遇名醫龐安時. 中醫藥文化. 2006. (1). p.21.

14) 張衛, 張瑞賢. 文豪蘇東坡奇遇名醫龐安時. 中醫藥文化. 2006. (1). p.21.

作題首一篇寄去<sup>하노라</sup> 方苦多事<sup>라</sup> 故未能使  
付去人<sup>하나</sup> 然<sup>이나</sup> 亦不久作也<sup>라</sup> 老倦甚矣<sup>오</sup> 秋  
初決當求去<sup>니</sup> 未知何日會見<sup>이라</sup> 臨書惘惘<sup>하니</sup>  
惟萬萬以時自愛<sup>하소서</sup>

(答龐安常二首『文集』卷八十二)

人生浮脆<sup>하니</sup> 何者爲可恃<sup>오</sup> 如君能著書傳後  
有幾<sup>라</sup> 念此<sup>컨대</sup> 便當爲作數百字<sup>하야</sup> 仍欲送杭  
州開板也<sup>하노니</sup> 知之<sup>라</sup>

(答龐安常二首『文集』卷八十二)

葉夢得的『避暑錄話』에 聖散子方에 대한 이야기도  
仔細하게 描寫되어 있으니 이 또한 龐安時과 關係가  
있다<sup>15)</sup>.

子瞻在黃州<sup>할새</sup> 蕪州醫龐安常亦善醫傷寒<sup>하야</sup>  
得仲景意<sup>라</sup> 蜀人巢穀出聖散子方<sup>하야</sup> 初不見  
於前世醫書<sup>하니</sup> 自言得之於異人<sup>하니</sup> 凡傷寒은  
不問證候如何<sup>리오</sup> 一以是治之<sup>하면</sup> 無不愈<sup>라</sup> 子  
瞻奇之<sup>하고</sup> 爲作序<sup>하니</sup> 比之孫思邈三建散<sup>이오</sup>  
雖安常不敢非也<sup>라</sup> 乃附其所著傷寒論中<sup>하</sup>  
니 天下信以爲然<sup>이라</sup> 疾之毫釐不可差<sup>하니</sup> 無甚  
於傷寒<sup>이오</sup> 用藥一失其度<sup>하면</sup> 則立死者皆是<sup>니</sup>  
安有不問證候而可用者乎<sup>아</sup> 宣和後에 此藥盛  
行於京師<sup>하고</sup> 太學諸生信之尤篤<sup>하니</sup> 殺人無  
數<sup>라</sup> 今醫者悟<sup>하야</sup> 始廢不用<sup>이라</sup>

(葉夢得『避暑錄話』卷上)

“蘇軾이 黃州에 있을때 蕪州的 龐安常이 傷  
寒을 잘 治療하여 仲景의 뜻을 모두 얻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蜀人巢穀이 聖散子方을  
만들어 처음에는 世上의 醫書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스스로 異人에게 이를 얻으니 무  
릇 傷寒은 證候를 묻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결같이 이 聖散子方으로 治療  
하면 낫지 않는 것이 없다. 蘇軾이 奇異하  
다 여기고 序를 記錄하니 孫思邈의 三建散  
에 比較되는 것이고 비록 龐安時라도 잘못

되었다고 하지 못한다하고 龐安時的 傷寒論  
에 記錄하였으니 天下사람들이 모두 그러하  
다고 믿었다. 疾病의 治療에 있어서 조금이  
라도 誤差가 생기면 안되는 것이니 傷寒보  
다 심한 것이 없고, 用藥에 한번 그 法度를  
잃게 되면 바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어찌 證候를 묻지 않고 使用하겠는가? 宣和  
後에 이 聖散子方이 京師에서 盛行하고 太  
學의 諸生이 이 聖散子方의 藥效를 믿는 것  
이 더욱 確固하니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  
이 있었다. 지금의 醫師들은 이를 깨달아  
聖散子方을 廢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葉夢得『避暑錄話』卷上)

張耒의 字는 文潛이고 또 柯山이며, 宋代的 文學家  
로 『張右史文集』, 『柯山集』이 있다. 召聖丁丑年  
(1097년)에 張耒가 처음으로 蕪水의 龐安時를 알게  
되었고, 후에 “予嘗從之遊 喜聞其說 不能盡究也”라  
고 하였고 戊寅年(1098년) 봄에 龐安時에게 다시 訪  
問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龐安時와 脈學의 原  
理에 대하여 討論하여 배운 것이 많아 “聽其議舶而  
不繁 妙而易曉”라 하였다. 元符元年(1099년)에 龐安  
時가 病死한 것을 알고 「贈龐安常先生」이라는 詩를  
지었다. 아울러 龐安常墓誌銘과 『傷寒總病論』의 跋  
文도 기록하였다.

贈龐安常先生<sup>16)</sup>

德公本自隱襄陽 治病翻成客滿堂<sup>이라</sup> 懶把窮  
通求日者 試將多病問醫王<sup>이라</sup> 一丸五色寧無  
藥 兩部千金合有方<sup>이라</sup> 他日傾河如石鼓 著  
書猶愿記柴桑<sup>이라</sup>

跋龐安常傷寒論<sup>17)</sup>

古之良醫가 皆不預爲方<sup>하니</sup> 何也<sup>오</sup> 病之來無  
窮<sup>하고</sup> 而方不能盡<sup>하니</sup> 使不工者 惑其疑似而  
用之<sup>하니</sup> 則害大矣<sup>라</sup> 惟仲景傷寒論論病處方

15) 張衛, 張瑞賢. 文豪蘇東坡奇遇名醫龐安時. 中醫藥文化. 2006. (1). p.21.

16) 熊傳海. 鄂東四大名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p.69~70.

17) 涇水縣衛生局, 湖北中醫學院. 傷寒總病論釋評. 湖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7. p 379.

은 纖悉必具하고 又爲之增損進退之法하여 以豫告人이라 磋夫라 仁人之用心이여 且非通神造妙者면 不能爲也라 龐安常又竊優其有病證而無方者하여 續著爲論數卷하니 其用心爲術이 非儂古人이라 何以及茲리오 淮南人謂龐安常能與傷寒說話하니 豈不信然哉리오 予將去黃할새 樂仲實以黃別駕後序求予書하고 而仲實之父爲醫하여 得龐君之妙하여 謂於言何如也하니라 (張耒『柯山集』卷四十四)

龐安常墓誌銘<sup>18)</sup>

生民之病을 堯舜是醫하니 惟周與孔이 世之良醫라  
遭癘於身을 扁鵲善治하니 惟民與身을 同一矩規라  
猗歎龐君이여 有見於茲오 獨顯以方하니 用不大施라  
孰疾如哀리오 孰毒於肢리오 有來求予하니 徑取無遺라  
飲酒著書는 終身遊嬉오 欲知其仁인대 弔者垂涕라  
卽化而安하니 不爽厥知오 有考其書하여 銘以昭之하노라  
(張耒『柯山集』卷四十九)

宋代의 著名詩人이고 書法家인 黃庭堅도 蘇門四學의 한 사람으로 龐安常과 친하게 지내 龐安常의 生涯와 醫學倫理想과 醫術에 대하여 깊은 理解가 있었다. 그리하여 『傷寒總病論』의 跋文을 記錄하였다<sup>19)</sup>.

4) 龐安常의 弟子<sup>20)</sup>

龐安常의 弟子는 많다고 하나 歷史的 資料로 알 수 있는 人物들은 대략 여섯명이다.

張擴은 字가 子充이며 安徽省 歙縣사람이다. 龐安

時에게 醫學을 배웠고 자신의 동생인 張揮에게 傳授시켰고 張揮는 아들인 張彥仁에게 傳達하였고 張彥仁은 『醫說』을 著述한 張某에게 醫學을 가르쳤다. 張某는 『醫說』에서 龐安常의 醫學事跡을 많이 기록하였고, 張擴의 傷寒을 治療한 醫案을 記錄하였다.

李伯全의 字는 幾道이고 舒州桐城(지금의 安徽省 桐城縣)사람으로 『宋史·龐安時傳』에서 龐安時를 모시고 다니는 弟子로 龐安常의 鍼治療法을 繼承하였다.

王實의 字는 仲弓이고 河南省 潁川사람이다. 일찍이 信陽太守를 지냈다. 郭雍의 『傷寒補亡論·序』에 “近世諸家傷寒書 …… 後來者惟王仲弓監丞書가 頗有發明이라”<sup>21)</sup>고 하여 傷寒에 造詣가 깊었다고 한다.

魏炳에 대한 記錄은 『傷寒總病論·音訓·修治藥法』의 마지막 부분에 “政和歲次癸巳門人布衣魏炳編”<sup>22)</sup>이라고 되어 있다. 魏炳은 龐安常의 製藥과 調劑方面의 學術을 이어받아 『修治藥法』을 著述하였다고 한다.

胡道士는 본래 이름이 胡洞微이고 江西省 九江사람이다. 蘇軾은 “龐安常爲醫 …… 九江湖道士頗得其術이라”(參寥求醫『文集』卷一百三)<sup>23)</sup>라고 하여 胡洞微가 龐安常에게 醫學을 배웠다고 하였다.

藥醫生의 이름은 모르지만 樂仲實의 아버지이다. 張耒의 『柯山集』에 인용된 「跋龐安常傷寒論」에서 “予將去黃할새 樂仲實以黃別駕後序求予書하고 而仲實之父爲醫하여 得龐君之妙하여 謂於言何如也하니라”<sup>24)</sup>고 하였으니 龐安常의 親炙弟子라 하겠다. 龐安常 死後 樂仲實이 『傷寒總病論』에 序와 跋을 쓰고 雕版하여 龐安常의 醫學을 世上에 알리는데 커다란 貢獻을 하였다.

乾隆五十九年의 『蕪水縣志』에 “治北曰蓮花山 上有龐安常廟”라는 記錄이 있고, 사람들이 龐安常를 記念하여 그가 診療하였다고 전해지는 潯水縣 城蓮花山에 藥王廟를 建立하고 매 초하루와 보름에 焚香하고

18) 熊傳海. 鄂東四大名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73.  
19) 熊傳海. 鄂東四大名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70.  
20) 熊傳海. 鄂東四大名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p.70-72.

21) 郭雍. 傷寒補亡論. 北京. 中國書店. 1992. p.4.  
22) 潯水縣衛生局, 湖北中醫學院. 傷寒總病論釋評. 湖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7. p.357.  
23) 張衛, 張瑞賢. 文豪蘇東坡奇遇名醫龐安時. 中醫藥文化. 2006. (1). p.21.  
24) 潯水縣衛生局, 湖北中醫學院. 傷寒總病論釋評. 湖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7. p.379.

參拜하였다고 한다.

王寔은 “謂百病之急은 無逾傷寒이라 故略學病名法及世名醫之言하여 爲十三篇하니 總方百四十六首라 (수많은 위급한 병에서 상한을 능가할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병명과 치법 및 세상 명의의 말을 대략 거론하여 13편으로 만들고, 처방이 모두 146首이다.)” 『傷寒証治』 3권을 편성하였다.(『郡齋讀書志』) 이 책은 간명하여 후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에는 실전되었다<sup>25)</sup>.

## 2. 龐安時的 著書

龐安時は 『難經解』一卷, 『主對集』一卷, 『本草補遺』一卷, 『驗方書』一卷, 『龐氏家藏秘寶方』五卷 『脈法篇』一卷 등을 著述하여 醫經, 脈法, 本草에 대하여 많은 研究를 하였고, 특히 傷寒論에 대하여 精密하게 研究하여 많은 著書를 남겼으나 現存하는 것은 『傷寒總病論』이다.

### 1) 『傷寒總病論』 六卷(26)27)

『通志·藝文志』에는 龐安時的 著作으로 『傷寒總病論』七卷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전하여 지는 板本은 黃丕烈이 1113년에 宋版을 復刊한 復刊本이다. 『傷寒總病論』은 六卷으로 되어 있고 뒤에 『音訓』과 『修治藥法』 각 一篇이 附加되어 있으며, 蘇軾이 龐安時에게 答한 書帖과 黃庭堅의 序와 張耒의 跋文이 있다.

『傷寒總病論』이라는 名稱이 사용되기 以前에는 「龐安常墓誌銘」에서는 『補仲景傷寒論』이라고 하였고, 『宋史·龐安時傳』에서는 『補仲景論』이라고 하였고, 蘇軾은 『辨傷寒論』이라고 하였고, 龐安時は 스스로 『傷寒解』 혹은 『傷寒解實』이라고 하였다. 蘇軾이 龐安時에게 준 序나 黃庭堅의 序나 張耒의 跋文에서는 『傷寒總病論』이라고 불리지 않았다. 아울러 1111년 『

南陽活人書』의 張葺의 序에 “蕪水道人龐安常作傷寒卒病論”이라고 되어 있다.

『傷寒總病論』은 宋·元豐五~六年(1082~1084년)에 基本的으로 完成이 되었고 지속적으로 修訂補完되어 1093년에 草稿가 完成되었다. 1099년에 龐安時 死後 蘇軾이 序文을 넣으라고 書札을 보냈고, 1100년 黃庭堅이 後序를 달고 張耒가 跋을 달아 出版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1113년에 門人인 魏炳이 계속하여 『音訓』과 『修治藥法』을 追加하여 『傷寒總病論』이라고 命名하여 正式으로 刊行하였다.

一卷에서는 敘論, 太陽證, 陽明證, 少陽證, 太陰證, 少陰證, 厥陰證, 兩感證, 三陰三陽傳病證을 言及하였고, 二卷에서는 不可發汗證, 四逆證, 和表證, 可下證 [血證附], 不可下證, 可水不可水證, 可吐不可吐證, 可灸不可灸證, 可火不可火證, 可溫證, 火邪證 등의 治法을 言及하였고, 三卷에서는 結胸證, 心下痞證, 陽毒證, 陰毒證, 狐惑證, 百合證, 瘧濕喝證, 瘧證, 濕證, 喝證, 發汗吐下後雜病證, 傷寒勞復證, 陰陽易證을 言及하였고, 四卷에서는 暑病論, 素問載五種暑病, 時行寒疫論, 時行寒疫治法, 斑豆瘡論, 溫病發斑治法(小兒證附)을 言及하였고, 五卷에서는 天行溫病論, 辟溫疫論, 青筋牽證, 赤脈攢證, 黃肉隨證, 白氣狸證, 黑骨溫證, 溫病噦方論, 黃病證, 傷寒感異氣成溫病壞候并瘧證, 敗壞別行方, 小兒傷寒證을 言及하였고, 六卷에서는 傷寒雜方, 妊娠雜方, 傷寒暑病通手刺法, 傷寒死生候, 熱病死生候, 溫病死生候, 天行差後禁忌, 解仲景脈說, 解華佗內外實說, 辨論을 言及하였고 마지막에 上蘇子瞻端明辨傷寒論書를 넣었다. 매 證狀의 아래에 論과 方을 記錄하였고, 平脈辨證을 하여 證狀에 따라 治療하기 쉽게 하였다.

『傷寒總病論』은 傷寒에 대하여 精密하게 研究하여, 『傷寒論』의 六經分證法으로 病證이 臟腑經絡으로부터 傳變되는 規律과 原因을 說明하였고, 地理氣候 및 飲食寄居와 傷寒發病과의 關係를 強調하였고, 『傷寒論』의 汗吐下和溫의 治法을 證候에 맞추어 運用하였고, 津液을 保存하고 胃氣를 保護하는 것이 傷寒治療의 重要原則이라는 것을 闡明하였고, 傷寒과 溫病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 溫病學派의 形成에 貢獻을 하였고, 傷寒과 溫病의 寒毒 및 異氣學說을 새롭게

25) 廖有群, 傅芳, 鄭金生공저, 박현국의 2人共譯. 중국과학기술회사(의학편). 서울. 一中社. 2003. p.574.

26) 熊傳海. 鄂東四大名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p.74~76.

27) 毛德華. 龐安時著作考傳. 中華醫史雜誌. 1991. 21(1) p.53.

게 만들었고, 小兒와 婦人의 傷寒에 關聯된 處方을 補充하여 傷寒의 治療方法을 豊富하게 하였다.

『傷寒總病論』은 宋治平二年(1065년) 林億 등이 校定醫書局에서 『傷寒論』에 대하여 整理하여 刊行한 뒤에, 당시에 비교적 빠르게 影響을 끼친 書籍이다.

龐安時는 『內經』의 要旨를 중심으로 王叔和의 『傷寒例』를 따르고 자신의 臨床經驗을 結合하여 『傷寒論』의 要點을 闡發하였다. 아울러 鄒平 扁鵲과 華佗와 王叔和 孫思邈 등의 理論을 취하여 補充하였으니 北宋以前的 傷寒의 集大成이라고 할 수 있다.

『傷寒總病論』의 宋刻本이 清代에 이르러 道光三年(1823년) 黃丕烈이 보았다는 記錄과 大藏書家인 陸心源이 보았다는 記錄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四庫全書』本과 北京의 文津閣本과 遼寧省圖書館의 文津閣本 등 復刊本은 많이 現存하고 있다.

## 2) 『難經解』一卷28)

『湖北通志·卷八十二藝文志·子部·醫家類』에 “安時嘗曰 世所謂醫書를 予皆見之로대 惟扁鵲之言深矣라 扁鵲寓術於其書 而言之不詳이라 予參以內經諸書하고 考究而得其說하고 又欲以術告後世라 故著難經辨數萬言이라”고 하였고, 『黃州府志·卷三十四藝文志·子部四·醫家類』에도 『難經解』一卷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곧 『難經解義』인 것이다.

『難經辨』, 『難經解義』, 『難經解』의 세 書籍은 실제로는 同一한 書籍으로 『難經』에 대한 著作이므로 『難經解』라고 統稱한다. 그러나 현재는 佚失되어 存在하지 않는다.

## 3) 『主對集』一卷29)

『黃州府志·卷三十四藝文志·子部四·醫家類』에 “安時嘗曰 …… 觀本草之性與五臟之宜컨대 秩其職任하고 官其寒熱하고 班其奇遇하야 以療百疾하야 著『主對集』一卷이라”고 하였다. 이는 藥物의 性味와 歸經과 主治와 應用에 대한 著述로 현재는 佚失되어 存在하지

않는다.

## 4) 『本草補遺』一卷30)

『黃州府志·卷十四人物志·方技』와 『湖北通志·卷八十二藝文志·子部·醫家類』에 “安時嘗曰 …… 藥有後出이라 古所未知하고 今不能辨하니 嘗試有功하야 不可遺也하니 作『本草補遺』라”하였다.

『湖北通志·卷八十二藝文志·子部·醫家類』에 또한 『本草爾雅』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龐安時가 本草에 대하여 增補·考證하여 著述한 것으로 『本草補遺』와 同一한 書籍이다. 그러나 현재는 佚失되어 存在하지 않는다.

## 5) 『驗方書』一卷31)

『中醫大詞典·醫史文獻分冊』과 『中國醫學百科全書·醫學史』에 龐安時의 著書로 『驗方集』이 있는데 실제로는 『驗方書』이다. 현재는 佚失되어 存在하지 않는다.

## 6) 『龐氏家藏秘寶方』五卷32)

『湖北通志·卷八十二藝文志·子部·醫家類』에 『傷寒總病論』의 다른 傳本이라고 하며, 龐安時가 『傷寒論』을 研究하여 著述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佚失되어 存在하지 않는다.

『四庫全書總目』에서는 “『文獻通考』載龐氏家藏秘寶方五卷하니 引陳振孫之言하야 謂安時以醫名世者惟傷寒而已라 此書南城吳炎晦叔錄以見遺하니 似乎別爲一書라 而下列庭堅之序與此本同이라 疑當時已無刻本이라 故傳寫互異歟인저 又載張耒一跋云 張仲景傷寒論이 病方纖悉必具하고 又爲之增損進退之法하야 以預告人이라”<sup>33)</sup>고 하여 『載龐氏家藏秘寶方』이 『傷寒總病論』과 同一한 內容이었을 것이라고 推測하였다.

28) 毛德華. 龐安時著作考傳. 中華醫史雜誌. 1991. 21(1) p.52.

29) 毛德華. 龐安時著作考傳. 中華醫史雜誌. 1991. 21(1) p.52.

30) 毛德華. 龐安時著作考傳. 中華醫史雜誌. 1991. 21(1) p.52.

31) 毛德華. 龐安時著作考傳. 中華醫史雜誌. 1991. 21(1) p.53.

32) 毛德華. 龐安時著作考傳. 中華醫史雜誌. 1991. 21(1) p.53.

33) 永瑤.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65. p.863.



### 7) 『脈法篇』一卷<sup>34)</sup>

『蕪州縣志·卷二醫術』에 “龐安常 …… 宋元祐間人 으로 自號蕪水道人이오 著傷寒卒病論及脈法이라”고 하였다. 『龐安常脈法』은 龐安時가 手抄한 것을 張耒가 『龐安常墓誌銘』에 記錄한 것으로 脈學에 대한 專門著作이라고 할 수 있으며 『脈法篇』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後世에는 『一撮金』이라는 脈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III. 結論

이상과 같이 龐安時的 生涯와 著書에 대하여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龐安時(1042~1099)는 字가 安常이며 蕪水(현재 湖北省 浠水縣麻橋)사람으로 名醫世家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醫書를 접하게 되었고 醫術이 뛰어나 ‘醫王’, ‘藥王’, ‘龐真人’ 등이라고 불리었고, 明代 羅田의 萬密齋와 蕪州의 李時珍과 清代 廣濟縣의 楊際泰와 더불어 鄂東四大名醫라고 불리기도 한다.

2. 龐安時は 蘇東坡, 張耒, 黃庭堅 등의 文人들과 많은 交流가 있었다. 蘇軾의 弟子들도 龐安時와 往來가 많게 되었으니 黃庭堅, 張耒 등의 人物이 蘇軾과 關聯된 사람들이다.

3. 龐安時的 弟子로는 傷寒에 造詣가 깊어 傷寒을 잘 治療한 張擴과 王實, 그리고 龐安時的 鍼治療法을 繼承한 李伯全과 龐安時的 製藥과 調劑方面의 學術을 이어받아 『修治藥法』을 著述한 魏炳와 龐安時的 醫學을 世上에 알리는데 커다란 貢獻을 한 藥醫生(이름은 모름)과 『傷寒証治』 3권을 編成한 王寔, 그리고 胡道士 등이 있다.

4. 龐安時は 『難經解』一卷, 『主對集』一卷, 『本草補遺』一卷, 『驗方書』一卷, 『龐氏家藏秘寶方』五卷 『脈法篇』一卷 등을 著述하여 醫經, 脈法, 本草에 대하여 많은 研究를 하였고, 특히 傷寒論에 대하여 精密하게 研究하여 많은 著書를 남겼으나 現存하는 것은 『傷寒總病論』이다.

5. 『傷寒總病論』은 龐安時가 『內經』의 要旨를 중심

으로 王叔和의 『傷寒例』를 따르고 자신의 臨床經驗을 結合하여 『傷寒論』의 要點을 闡發하였다. 아울러 郿 扁鵲과 華佗와 王叔和 孫思邈 등의 理論을 취하여 補充하였으니 北宋以前의 傷寒의 集大成이라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論文>

1. 歐陽軍. 我國最早開設住院部的名醫 龐安時. 藥物與人. 2000. (1). p.24.
2. 毛德華. 龐安時著作考傳. 中華醫史雜誌. 1991. 21(1). p.52, 53.
3. 李官火. 蘇軾與龐安時. 浙江中醫雜誌. 2003. (9). p.406.
4. 張衛, 張瑞賢. 文豪蘇東坡奇遇名醫龐安時. 中醫藥文化. 2006. (1). p.20, 21.

<單行本>

1. 郭雍. 傷寒補亡論. 北京. 中國書店. 1992. p.4.
2. 廖育群, 傅芳, 鄭金生 共著, 박현국의 2人 共譯. 중국과학기술사(의학편). 서울. 一中社. 2003. p.574.
3. 永瑤.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65. p.863.
4. 熊傳海. 鄂東四大名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62, 70, 73, pp. 64-66, 69-72, 74-76.
5. 托克托. 宋史. 影印本.
6. 洪元植, 尹暢烈, 金容辰. 韓中醫學史概說. 大田. 周珉出版社. 2007. p.241, 249.
7. 浠水縣衛生局, 湖北中醫學院. 傷寒總病論釋評. 湖北省.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7. p.357, 379.

34) 毛德華. 龐安時著作考傳. 中華醫史雜誌. 1991. 21(1) p.52.